

8/9/20

설교 제목: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브엘세바 맹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1 장 22-34 절

- (창 21: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
- (창 21: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 (창 21: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 (창 21: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 (창 21: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 (창 21: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 (창 21: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 (창 21: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나
- (창 21: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 (창 21: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 (창 21: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 (창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 (창 21: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은 후 얼마되지 않아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창 21:22)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 21: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블레셋 안에 있는 그랄 지역 왕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 왕이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 온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고 아브라함은 한낱 나그네였지만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과 사이 좋게 잘 지내기 위해 화친 조약을 맺기 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 큰 곤경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에서 20 여년을 살다가 네게브 그랄로 이주했던 초창기 때의 일입니다. 혹여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으려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는 말만 믿고 사라를 후처로 삼기 위해 데려 갔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 큰 곤경에 빠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시며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단언코 아브라함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감싸고 보호하시는 것을 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양과 소와 노비와 함께 은까지 주어 사라를 돌려 보냈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그랄 땅 중 좋은 곳을 택하여 거주하라고 땅까지 내주며 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닫혔던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을 블레셋 그랄 땅에서 지내며 매사 형통하고 번성했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도 거기서 낳았습니다.

헤브론에서 그랄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때부터 아브라함을 꼭 지켜본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해도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겼다면 자신의 나라 백성인 블레셋 족속도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과도 사이좋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블레셋 족속은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라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신인 하나님이 능력의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과 자손들을 위해 아브라함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자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내가 너를 후대한 것처럼 너도 나와 내 자손에게 후대할 것을 맹세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랄로 처음 이주했을 때 아내 사라 일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그를 내치지 않고 양과 소와 은까지 주어 사자를 돌려보냈던 일과 땅을 선택하게 하여 그랄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화친을 맹세하기 앞서 그동안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당했던 부당한 일을 짚고 넘어갑니다.

(창 21:24)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창 21: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창 21:26)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의 종들이 자신이 판 우물들을 빼앗은 일을 언급했습니다.

사막 지대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식구들과 종들 그리고 그에 속한 많은 가축들을 위해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을 확보하기 위해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제껏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빼앗기면 또 다시 다른 우물을 파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멜렉이 화친 동맹을 맺고자 하는 마당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책망을 받은 아비멜렉은 그런 일은 금시초문이라고 변명을 합니다.

왕인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은 그쯤에서 넘어가고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세웠습니다.

(창 21: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의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어느 정도 세력도 형성하게 되었지만 그는 그랄 땅의 나그네이고 아비멜렉은 그곳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 측이 먼저 언약 맺기를 요청했지만 아비멜렉을 존중하는 의미로 자신이 언약의 징표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언약을 맺을 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물건이나 짐승을 가져다 주는 것이 당시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 맹세를 합니다.

(창 21: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창 21: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이나

(창 21: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창 21: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 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져온 양과 소 가운데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 아비멜렉에게 주어

자신이 이 우물들을 팠다는 것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참에 우물에 대한 분쟁까지 마무리 짓고 우물의 소유권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을 따로 세운 것으로 보아서 분쟁이 된 우물이 일곱 개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두 사람은 우물 건까지를 포함해 서로 맹세를 하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였습니다.

브엘세바는 히브리어로 우물을 의미하는 브에르와 맹세를 의미하는 세바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습니다.

언약을 세운 후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들 이삭과 함께 평화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창 21: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창 21: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으며

(창 21:34)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살면서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원할하게 물이 공급된다는 전제 하에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에셀 나무는 깃털 같은 가지에 작은 잎이 비늘처럼 촘촘히 붙어있는 특이한 형태의 상수리 나무인데 잎이 가늘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적고 땅 밑 30m 까지 뿌리를 내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해 사막 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면했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만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불변하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달았으며 자신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맺은 브엘세바 맹세는 아브라함이 죽자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 26: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창 26: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 26: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창 26: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창 26: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창 26: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창 26: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창 26: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창 26: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창 26:21)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인간의 맹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맹세 곧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불변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며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실수를 범했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언약하고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변치 않으시고 언약을 지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렇때도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홀로 묵묵히 이루어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에서 견디지 못할 시련과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고난을 견디며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할때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우리는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높입니다.